제품 다양화 속 인프라 확산

▷'그린 마케팅' 활기…관광상품화로 지자체 경기 활성화

녹차 바람이 가장 거세게 일어난 곳은 단연 식음료 시장. 기업들은 앞다퉈 녹차 음료를 출시했고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등에도 녹차를 이용한 '그린 마케팅'이 활개를 띄었다. 뿐만 아니라 화장품, 속옷 등의 공산품에도 녹차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녹차라떼' '녹차케익' 등을 판매하는 녹차 전문점도 속속 생겨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차를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에 앞장섰다. 차를 단순한 먹을거리로서만이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하동 야생차축제와 보성다향제, 문경찻사발축전 등은 이미 차인들의 '필수 관광축제'로 자리 잡았고, 전북 익산시와 무안군은 각각 임해사 터 야생차밭 복원과 초의선사 탄생지 성역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차제들의 이 같은 사업은 일반인들에게 차문화를 널리 알리고 우리 차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개방에 따른 국산 차 위기 속 자구책 마련 분주

국내의 '녹차 붐'과는 달리 차계 전반에는 '중국차 열풍'이 그 어느 때 보다 거셌다. 전문가들은 WTO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차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했고, 그것은 일정부분 현실로 드러났다. 차 시장 개방에 발맞춰 자사호 작가 초청 전시회와 동남아 차문화를 소개하는 다례시연 등이 마련됐고, 수입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매장도 늘어났다. '진짜다 가짜다' 하는 진위논란이 식을 줄 모르는 보이차의 인기는 올해도 여전했다.

국내 차 생산자들은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녹차의 고급화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전남 보성시는 올해 중국 선양시에 보성 녹차 직판장을 개설해 우리 차를 세계화하는 성공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해결 과제는

웰빙 트렌드에 따른 녹차의 인기는 '시대적 요구'라 할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하지만 녹차가 하나의 '건강식품'이나 '상품'으로만 다루어지면서 차를 통해 즐길 수 있는 정신문화가 소외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녹차가 단지 유행에 편승한 하나의 '인기 상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차문화협회 김해만 사무처장은 "최근 녹차 붐으로 인해 급증한 '초보 차인'들을 진정한 차의 세계로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차 단체들의 선결과제"라고 지적한다.

인기 편중에 우려…차에 대한 안목 길러야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중국차와 다구들이 유행처럼 팔려나가는 것도 우려할만한 상황이다. 정인오 교수는 "수입차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차인들 스스로 차에 대한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교계에서는 기독교와 천주교 차인회의 괄목할만한 성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들 차인회는 올 한해 전국적인 조직을 이루고 헌다례를 응용한 다례의식을 정립하며 차문화 확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포교의 방편으로서 차문화를 연구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수령 기자

2004 차문화 결산

차가 '마시기 까다로운 고급 음료'라는 이미지를 벗고 대중 곁으로 다가왔다. '웰빙(well-being)' 열풍은 차문화계에도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켰다. 음료와 과자, 화장품, 속옷 등 차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여 대중적인 관심을 끌었고, 대학 내에 관련 학과 개설과 차문화의 학문적 정립 시도가 이어졌다.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한국차학회 1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등 굵직한 행사가 잇달았던 차 문화계를 점검해 본다.

▷품평회 통한 정보 공유…경쟁력 강화 노력

수입 차에 대한 높은 관심은 우리 전통 차문화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일부 차인들은 우리 차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차에 관한 정보 공유와 차 품평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런 뜻으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품평 행사로, 300여 종에 달하는 차 제품이 출품되고 1천5백여 명의 차인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차 품평대회'는 차문화 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받는 '품다(品茶)'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차인연합회와 한서대 정인오 짱유화 교수는 지난 10월 서울 인사동에 '한국국제차엽연구소'를 열고 '차 품평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내 차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적 출간 증가 · 학술 세미나 풍성

차 문화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었다. 원광디지털대학과 목포대등에 차학과가 신설됐다.

차 관련 서적 출간이 증가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한승원 씨의 <초의>는 출간되자마자 큰 인기를 끌었고 정찬주 씨의 <다불>, 김영무 씨의 <초의선사 장의순> 등도 선보였다. 또 故 천병식 교수의 <역사 속의 우리 다인>과 김대성 씨의 <초의선사의 동다송>, 정동주 씨의 <한국인과 차>, 등도 눈에 띈다. 도서출판 이른아침은 '다유락 선고다인 총서' 시리즈로 절판된 근현대 다서의 복간(復刊)을 시작했다.

학술대회의 성과도 풍성하다. 한국차학회(회장 신미경)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국제심포지엄을, 천태차문화연구보존회는 창립 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특히 김상현 교수(동국대)는 그동안 구전(口傳)으로만 존재했던 '구증구포'에 관한 문헌을 공개해 학계의 관심을 끌었다.

차 단신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3기 신입생 모집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우리 전통 차문화를 이어갈 3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신입생은 기초과정 2년, 연구과정 3년의 총 5년 동안 차 고전 강독 및 제다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 전통문화와 차문화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로 35세 이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한문과 논술 등의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원서는 1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한다. (02)504-6162

■ 반야로차도문화원, '효당 탄신 100주년 기념 차담회'

근현대 우리 차문화의 맥을 이은 효당 최범술 스님(1904~1979)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반야로차도문화원(원장 채원화)은 12월 19일 동국대학교 예술극장에서 '효당 탄신 100주년 기념 추모 차담회'를 개최한다. 채원장은 "효당 스님은 국내 최초로 차모임을 결성하고 <한국의 차도> 등의 다서를 펴낸 우리나라 근대 차문화의 중흥조"라며 "이번 행사를 스님의 다도 사상과 반야로차의 맥을 되짚어 보고 이를 올곧게 이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차담회는 추도식과 반야로차도 행다 시연, 무차대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02)764-8997

■ 5색의 찻그릇 전

우리 차문화와 다도구 발전을 위해 창립된 단국대학교 도예연구소 찻그릇연구회는 12월 15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동양다예에서 '5色의 찻그릇 전'을 개최한다. 도예가 김갑순, 장영필, 정영, 정호진 씨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09-2269

남북국시대 ②

'茶'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한 시기

8세기 후반, 신라가 바야흐로 불교문화를 꽃피운 시기로 접어든다. 김대성은 불국사를 창건하여 불국토(佛國土)에 대한 염원을 창출했다. 화랑들은 명산승지를 다니면서 음다풍류(飮茶風流)의 선적(仙跡)을 남겨 지금까지 전한다. 월명사나 진감국사 같은 다승(茶僧)들이 있었고, 다연원(茶淵院)이란 다소(茶所)까지 있었다. 중국은 안사의 난을 치르고 육우가 <다경>을 완성했다. 사상 최초로 다세가 부과된다. 공다원이 생기고 다마무역(茶馬貿易)이 성행했다. '칠완다시'가 쓰여졌고, 황실에까지 명전(차 겨루기)이 행해질 정도였다.

따라서 이 때는 차가 기호음료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획을 긋는 시기였으며, 국가는 차에 대한 막대한 이득을 관장하기 시작한다.

① 석굴암 벽면의 문수보살은 오른손에 손 지름 크기의 찻잔을 들고 선정(禪定)에 들어 있다.

② 경덕왕 때 일괴(日怪)가 나타났다. 월명사가 '도솔가'를 지어 부르니 조금 후 평상으로 돌아왔다. 임금이 차 도구 한 벌과 수정염주를 내렸다.

③ 경주 창림사지에서 '다연원' 명(銘)이 있는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명이 있는 기와를 쓸 정도의 건물이면 그 위상을 알 수 있고 다원으로 추정한다.

④ 비에 한명(漢茗)을 끓여 마신 기록과 '다약(茶藥)'이라는 말이 나온다.

⑤ 옛 사람이 차를 끓여 마셨다는 돌부뚝막과 샘에 관한 이야기다. 안축, 김극기, 서거정, 이제현, 이곡 등이 쓴 기록에 명확하게 남아있다.

⑥ 육우가 안진경을 만나 다경을 집필하는데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⑦ 천자(天子)에게 차를 바치던 기구.

⑧ 고대 중국 서북지역의 유목민들이 그들의 말과 중국의 차를 바꾸어 교역하여 성시를 이루었다.

⑨ 안진경이 육우를 위해 지은 정자.

⑩ <다경> 육우가 차의 가장 근간을 기록한 책이다. 이로 인해 약용으로 쓰이던 차가 기호음료로 바뀌고 높은 정신세계에 오르게 된다.

⑪ 노동은 당대의 시인이며 차인으로 소실산(少室山)에 은거하며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가 쓴 '주필사맹간의기신다(走筆謝孟諫議寄新茶, 세칭 칠완다기)'가 유명하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시대별 연표 @ 표는 약(about)

	한국	중국	일본
남북국시대	751 불국사 창건(김대성) ① 758 승려 30여 명이 일본 무장(武藏)에 이주하여 '신라군'을 설치함 760 월명사 '도솔가' '제망매가' ② 763 단속사(斷俗寺) 창건 766 다연원(茶淵院) ③ 771 성덕대왕 신종주조 774 진감국사 대공탑비(최치원) ④ 778 백좌법회를 열다 @ 묘련사 석지조 ⑤		
당대		755 안사(安史)의 난 @ 현종이 투다(차 겨루기)를 즐기다 @ 전기(錢起) 고황 757 육우, 안진경을 만나고 교연을 사귀다 ⑥ 761 육우, <다경> 초고 집필 시작 765 다술(茶述) : 배문 770 공다원(貢茶院) ⑦ · 다마무역(茶馬貿易) ⑧ · 양선차 진상기록 · 두보의 죽음 774 삼계정(三癸亭) ⑨ 780 <다경> ⑩ 덕종의 양세법(兩稅法) 781 차 진상기록(원고, 遠高) @ 노동(盧仝)의 시 ⑪ 왕부의 다주론(茶酒論) 793 차세(茶稅) 부과 (每十稅一)	
나라시대			@ 전교(傳敎) 스님, 당에서 차씨를 가져와 심다 794 평안(平安) 천도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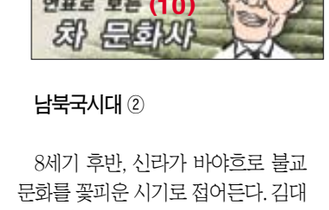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춥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상담실 : 02)969-8080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관절과 연골에 글루코사민 포르테

관절염 치료제 BDX-1(특허 제0429595호)

BDX-1은 2000년 3월부터 3년여 동안 총 10억여원의 개발비를 투자하고 중소기업청이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지원하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카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활성평가 연구실**에서 30여 차례 이상의 효능 및 독성실험 등 임상 실험을 거쳐 완료된 **관절염 치료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원료**입니다.
2004년 4월 국내 특허를 획득(**특허 제0429595호 : 생약추출물을 포함하는 관절염치료 및 예방용 조성물의 제조방법** 및 그 조성물) 하였습니다.

- 골관절염
- 통증을 감소 및 활동성 향상
- 관절손상 보호
- 항염증 작용
- 혈액과 관절에 쉽게 흡수되어 항염증, 진통작용
- 활동성을 향상
- 골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신장결석, 사고등으로 인한 관절계통의 상처 치유

건강기능식품
900mg 60정×2

관절과 연골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글루코사민 포르테정은 엄격한 품질관리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글루코사민 포르테"를 1개월만 복용하면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2~3개월만 복용하면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주)제이팜제약
주문 및 상담전화 : 02-598-9834